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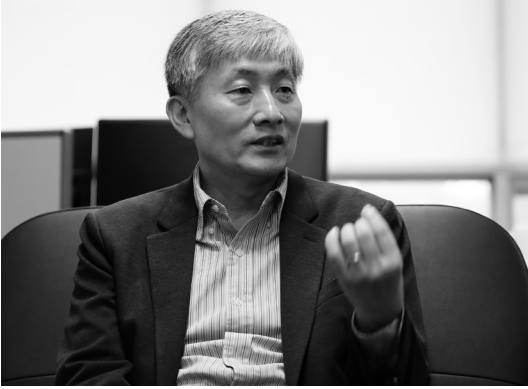
신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인터뷰 - 하순희 교수(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특집

신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인터뷰 -하순희 교수(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신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인터뷰 -하순회 교수(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특집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부임하기 전 CTL에 대한 이미지와 부임 이후 알게 된 CTL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민 헤 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교수

솔직히 말하면 CTL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e-TL을 운영하는 곳이고, 교수법 강의를 하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글쓰기 지원이나 학생들 학업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교내 다른 교육기관이 교과과정 하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면, CTL은 비교과적인 교육 전반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다룬다는 면에서 생각보다 업무가 많은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CTL 센터장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지 궁금합니다.

교수법, 학생지도, 글쓰기 관련해서 IT 분야의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교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잘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러닝 부서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닝은 지금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축적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맞춰 이러닝을 지원할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터인데, 어떤 것이 서울대에 맞는 이러닝 시

스탬이 될지를 이러닝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닝의 장점은 개별화, 수준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닝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생들이 자기 수준 및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온라인을 활용하여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맞게 시스템이나 콘텐츠가 커스터마이징되어가는 것처럼, 교육에서도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서울대학교에 맞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데,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CTL에서 꽤 많은 강의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K-MOOC 강좌 및 edX 강좌도 개발되어 전 세계, 전국에서 누구나 서울대학교의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콘텐츠 개발 방식은 제작 비용을 많이 들여서 높은 퀄리티의 영상 촬영을 통해 강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닝 시스템 외에 CTL의 다른 영역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학생지원 부분에서는 서브프라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 외 입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 학생들을 그룹화해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또 다른 요구사항은 이들의 입학전형상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단과대학별로 멘토 시스템이 활성화 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과대별 멘토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학생들의 학습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서울대 차원에서 일관된 시스템이 운영되게끔 CTL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지원 부분에서 같은 교수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교수들에게 연구만큼이나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에 대한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교수법 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립러닝과 같은 새로운 교육법을 소개해주고 이러한 새로운 교수법들이 대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 분석해서 그 결과를 학내 교수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이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온라인으로 교수법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교수들에게 좋은

교수법의 정보도 제공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손쉽게 교육방법을 접할 수 있어서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내에서는 CTL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CTL이 고유 업무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쓰기교실이나 서브프라임 공동체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은 교수학습개발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역할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기관이 이런 업무들을 맡아서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학내에 그런 기관이 없으니, 크게 봤을 때는 CTL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쓰기교실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학내 구성원의 글쓰기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 역시 글쓰기 교육의 수혜 대상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 역량강화가 필요한 대상이 문, 이과, 외국인 등 다양한데, 현재 운영되는 글쓰기교실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본부 지원 하에 글쓰기 관련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글쓰기교실 인원을 확충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 중 하나는 컴퓨터 기술, 온라인을 이용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CTL 센터장으로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CTL을 운영해 나갈지 구상하시는 바를 말씀해주세요.

CTL 센터장은 2년의 임기 동안 수행하는 보직이지만, 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교수들과 직원들은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장기간 축적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센터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보화본부, 평생교육원 등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학내 다른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학습 역량 강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컴퓨터 전문가로서 이러닝 시스템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여 현재 CTL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L 역할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필요한 인력과 예산, 기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에도 신경 쓸 생각입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가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책무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을 마련하고, 그를 이행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한걸음을 내딛는 일을 임기 내에 시작할 수 있다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